



EPISODE



수티랏 수파파린야 <나보다 빠른 나> video 2004

나의 외면은 현재에 한정된다. 모호한 미래는 내가 그것을 꿈꾸도록 유혹한다. 그것은 나의 사고를 붙들어 놓는, 현재의 시간 없이 어떤 순간을 상상하도록 나에게 막연한 공간을 창조한다. 나는 나의 사고가 빠른 속도로 현재를 통과해 "움직이기"를 원한다. 나는 나를 제한하는 시간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멀더라도 나는 초고속 열차처럼 미래로 돌진하기를 열망한다.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여 우리는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내

가 부딪히는 상황들은 의지할 수 없고 안정적이지 않다. 그것은 금방 다시 변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 진행 중인 변화를 결코 쫓아갈 수 없다. 때때로 나의 의식은 그 대신 미래에 집중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들보다 다가 올 상황들이 더 나를 흥분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변화들과 시간의 차원에 대한 혼란이 나에게 불연증을 일으킨다. 자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나의 몸은 나의 몸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리도록 나의 정신을 부추긴다.

Sutthirat Supaparinya <I Move Faster Than I am> video 2004

My externals are confined to the present. The blind future tempts me to dream of it. It creates an indefinite space for me to imagine a moment without the present time which detains my thoughts. I want to "move" my thoughts through the present at a neckbreaking speed. I want to run away from time that confines me. Even though I'm quivered with fear...of the future, I yearn to dash into it...like a soundless bullet train. Our surroundings keep changing so dynamically that we are not

aware of them. The situation I'm encountering is unreliable and unstable. It will change again soon. We can never catch the changes in the act. Sometimes, my conscience would focus on the future instead since it makes me more excited of the upcoming circumstances than the passing ones. The confusion of all changes and the time dimension causes me an insomnia. While I'm trying to sleep, my still body encourages my mind to race faster than how my body "moves".

